

第5共和國에 있어서의政治  
 第145回國會 權力型非理調查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 
 不實企業調查第1班  
 大韓民國國會事務處

日 時 1989年3月7日(火)  
 場 所 特別委員會小會議室(519號室)

議事日程

1. 調查班運營에 관한件

審査된案件

1. 調查班運營에 관한件.....1面

1. 調查班運營에 관한件

(11時25分 開議)

○班長 金 炫 우리 1調查班이 調査할 수 있는 日程은 10日밖에 事實없습니다.

8·9日은 本會議가 있으니가 우리가 本會議 도중에 나갈 수는 없으니가 우선 날짜부터 正해야 될 것입니다.

○盧武鉉委員 우리가 너무 다급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引受企業과 被引受企業이 제일 첫번째 조사로 되어 있는데 그 때에 대해서는 核心的인 부분에 관한 質問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.

그 때에는 銀行 金融機關이나 資料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로 引受企業에 質問할 것을 핵심으로 해서 할 부분만 찾으면 되니까 11日 하루 정도면 충분합니다.

○沈完求委員 8·9日 本會議에서는 表決可能性이 있으니가... 3月10日은 勤勞者의 날인데...

○盧武鉉委員 銀行監督院도 10日에 옵니까? 銀行監督院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?

○立法調査官 趙南樂 金融勞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勤勞者의 날에는...

○盧武鉉委員 그렇습니까? 勞組가 들어 있습니까?

○李東根委員 그러면 財務部 가능하고 韓進海運쪽은 한 번 나가야 안될까요?

○盧武鉉委員 10日에 官公署하고 11日 아침에 金融機關으로 하지요. 아침에 시작해 놓으면 土曜日 午後까지 물고늘어지는 것이지요. 사람 두고 퇴근하겠습니까?

○班長 金 炫 죄송합니다. 個人的인 예기인데... 11日 우리가 大田에다가 저같은 경우

12時에 黨員들 600餘名이 모여서 國會大會를 하기로 했습니다.

○沈完求委員 그러면 班長없이 우리끼리 조사 해가지고 班長한테 報告하면 되겠지요? 資料는 충분히 제공해 드릴테니까...

○班長 金 炫 그것은 상관없습니다.

그런 것이 양해가 다 된다면...

○李東根委員 10日 11日 이틀간으로 합시다.

○班長 金 炫 10日은 어디로 하시겠습니까?

○盧武鉉委員 引受企業이 그 날의 첫번째 質問者이지 않습니까?

그래서 引受企業쪽의 조사를 우선 13日 14日의 訊問以前에 해야 할 것이 引受企業쪽입니다.

○班長 金 炫 그러면 引受企業이라면 韓進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?

어디어디로 引受企業으로 나간다는 말입니까?

○李東根委員 韓進海運쪽은 한 번 가보아야 됩니다.

私企業體는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韓進「그룹」정도는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

○班長 金 炫 企業에서 꼭 나가야 될 때가 있다면 어디로 나갑니까?

○盧武鉉委員 國際쪽에는 極東建設이...

그런데 極東建設에 있는 文書가 대부분 銀行에도 있지 않아요?

어느 쪽이든지 11日은 勤勞者의 날로 선다고 하니가 문제가 있네요.

○班長 金 炫 그러니까 會社側에다 專門委員이 확인을 해서 차라리 꼭 나갈 것이면 쉬는 날 몇몇 사람만 나와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타협을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.

○沈完求委員 10日 勤勞者의 날 引受企業하고 被害者側이라고 할까 資料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고 行政機關만나고 11日은 土曜日이지만 金融機關하고 사전에 연락할 때 午後까지라도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하지요.

○李東根委員 10日 하루종일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?

○沈完求委員 물론이지요. 土曜日이지만 關係機關은 우리가 檢證이나 資料確認에 미리 그렇게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. 土曜日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機關을 미리 정해서 그 쪽에 午後 늦게까지 협조를 요청해야지요. 그것은 가능할 것입니다.

○班長 俞 炫 저 個人생각은 企業에 들어가서 굳이 調査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企業이 하루 마비되다시피 하니가 國會로 불러서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委員님들이 들어가야 된다면 차라리 勞動節이라면 오히려 낫지 않는가... 필요한 몇 사람만 있어서 資料를 줄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企業하고 타협을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. 자기들 설계에 우리는 資料만 달라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만 나와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요.

○沈完求委員 引受企業이나 關係企業에 13日부터 聽聞會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勞動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참석안합니다.

○班長 俞 炫 그러니까 참석안하고 資料準備를 할 것이니까 천상 그날 나가는 것을 韓進하고 極東建設에 협조요청을...

○盧武鉉委員 얘기가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企業에 있는 모든 文書는 거의 대부분 銀行에도 있게 마련이지요. 銀行에 가서 企業들에 關聯된 文書들을 가지고 오게 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?

○班長 俞 炫 그것도 좋습니다. 차라리 銀行에다가 10日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 협조될 것 아닙니까? 銀行은 代表的으로 두 個만 합니다.

○李東根委員 外換銀行하고 第一銀行하고 監督院하나 끼웠으면 좋겠어요. 行政府는 財務部만 해도 좋겠고 企業은 韓進海運은 脫稅다 무슨 會計帳簿造作이다 이런것은 반드시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.

○沈完求委員 그러니까 金融機關이나 勞動節에

관계되는 業體는 11日로 돌리되 단 土曜日이지만 午後 늦게까지 협조를 우리가 사전에 구하자는 얘기입니다.

○盧武鉉委員 10日이 勞動節이기는 한데 여기에 관련된 文書들을 가지고 있는 部署들은 극히 일부에 속합니다. 重役障하고 뭐 審査部 管理部的 일부이고 또 文書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. 外換銀行 第一銀行을 10日로 합시다.

○李東根委員 그리고 銀行監督院은?

○盧武鉉委員 일단 銀行에 가서 일을 해보면 監督院에 관한 端緒部分이 나올 수도 있고 企業體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. 우선 企業에서 받을만한 것도 銀行에서 받을만한 것은 다 받고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 안 나오는 부분을 다음 날 11日 土曜日 企業體로 해가지고 합시다. 財務部쪽은 15日쯤 가도 됩니다. 제가 알고 있기로는 財務部에는 文書가 없어요. 法律的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예요. 없다는 것만 확인할 것 밖에 없어요.

○李東根委員 저 생각은 財務部에서도 우리가 뜯어내면 나올 것같은데...

○盧武鉉委員 그래서 政府機關은 15日로 하면 어떻습니까? 어차피 우리한테 날짜가 없으니까...

○李東根委員 그렇게 되면 國際「그들」問題를 다룰 적에...

○盧武鉉委員 왜냐 하면 13日 14日 引受企業과 被引受企業 계속 나오니까 財務部쪽 資料를 가지고 그렇게 따질 것은 없거든요. 주로 모든 資料의 핵심은 전부 銀行쪽에 다 있습니다. 法律的인 文書는 전부 銀行에 다 있고 實查에 관련된 것도 銀行에 다 있으니까 銀行을 1次하고 그 다음에 빠진 것들 銀行에서 분명히 나와야 될 것들이 안 나오는 個別企業의 文書들을 11日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13·14日정도에 묻고 15日 政府의 것을 따지자는 것이지요.

○班長 俞 炫 그러니까 저 생각도 銀行에 가면 웬만큼은 簿 書類는 다 메니까 굳이 企業을 들어가는 것보다 通報해서 이것이것 가지고 와라...

○盧武鉉委員 그리고 委員長님! 國際關係에 대해서는 第一銀行은 資料를 극히 소상하게

내용았는데 商業銀行에서 資料를 안 주고 있어요.

안 준 놈들 잡아내자는 것이 檢證인데 이 商銀이 빠지면 안돼요.

○李東根委員 그런데 財務部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. 여기에서 안 나올 것이 거기에서 나올 것도 있단 말이에요.

○盧武鉉委員 財務部는 土曜日로 잡읍시다.

○班長 金 炫 商銀이 資料를 안 주어요?

○盧武鉉委員 안 주어요. 그래서 보니까 第一銀行같은 데는 몇 가지 「포인트」만 짚으면 되는데 商銀에서는 통째로 資料를 안 내놓았어요.

○李東根委員 銀行監督院갔다 해야 되는 것이 지금 銀行監督院長이 당시 商業銀行長이었거든요. 양쪽 관련이 된다고요. 銀行監督院도 필요한 데다가 商業銀行長까지...

○班長 金 炫 그러니까 銀行부터 들어가고 監督院을 해야지 監督院부터 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.

○盧武鉉委員 그러니까 10日에는 통째로 銀行으로 전부 배치를 하고 11日은 銀行에서 안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監督院과 財務部와 企業을 같이 하자는 것이지요.

그런데 이런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.

지금 우리가 어떤 議決過程에서는 基本的으로 定足數가 맞추어져야 되는데 調査活動은 個別 委員들에게 분산되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. 두 「팀」으로 만들어서 財務部하고 監督院 한 쪽으로 하고 企業들 따로 하는 것도...

○李東根委員 되도록이면 數字가 적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요.

○盧武鉉委員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데 10日에 金融機關을 다 훑다 보면 基本的으로 윤곽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.

나오면 11日 日程을 財務部쪽 하고...

○班長 金 炫 5時 정도 해서 商業銀行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한 번 짜봅시다.

○盧武鉉委員 조금 더 일찍 들어가서 商銀은 아마 싸움 좀 해야 될 것입니다.

○班長 金 炫 商銀을 맨 마지막으로 돌리자고요? 순수하게 잘 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해 주고 안 하면 늦게까지라도...

○李東根委員 그러면 企業도 지금 정해야지요.

○盧武鉉委員 저같은 경우는 企業쪽에 우선할 수 있는 것은 極東建設쪽인데 商銀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.

商銀이 제대로 안 나오면 가야 되고 나오면 안가도 됩니다.

○李東根委員 韓進 極東 財務部 土曜日해놓읍시다.

○班長 金 炫 財務部에는 가도 하나도 없다면서요.

○盧武鉉委員 그런데 상당한 시사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.

그 당시 實務者들이 財務部에서 만든 文書가 銀行에 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이 보관되어 있을 可能性을 배제할 못합니다.

○李東根委員 그런데 國際「그름」問題點과 對策이라든지 現況과 對策이라든지 전부 極秘文書가 거기 다 있어요.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.

○盧武鉉委員 지금까지 보면 의외의 곳에서 항상 틀림없이 있다 라는 심증은 가는데 어떻게 찾을까 생각이 잘 안 가는 부분들 가서 찾아지는 경우 많습니다.

○李東根委員 財務部 銀行監督院 極東 韓進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.

○盧武鉉委員 그리고 가서 하는 방식도 일체 「브리핑」든지 말고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것 딱딱 짚어서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.

○班長 金 炫 일체의 「브리핑」을 거부하고 그것은 「브리핑」을 듣다 보면 시간만 가요.

그러면 이렇게 하지요. 10日 銀行을 가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부족하면 그 다음에 企業을 택해서 어디 어디 가겠다 그러니까 通報는 11日 韓進 極東建設 財務部 銀行監督院에 해놓되...

○盧武鉉委員 財務部하고 監督院은 午前에 韓進하고 極東은 午後에 합시다.

○班長 金 炫 그렇게 하겠습니다.

이상 마치겠습니다.

(12時 散會)

○出席委員

金 炫 李 東 根 朴 相 千  
盧 武 鉉 沈 完 求